



함께 나누는 세상

◀ 32

## 좋은 책을 나누는 사랑의 모임 (사) 좋은 책읽기 가족 모임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다. 책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그 책을 통해 자아관,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 기일 것이다. 또한 어린시절 감명깊 게 읽은 한권의 책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가까운 곳에서 정신적 양식의 뼛을 담당하고 있는 책을, 여러 사람이 편안한 공간에서 무료로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있다.

사단법인 좋은 책 읽기 가족모임  
(이하 가족모임).

1987년 11월 한길교회 담임목

사를 맡고 있는 한수연 목사와 이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민순자씨 등 몇몇 뜻있는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이 모임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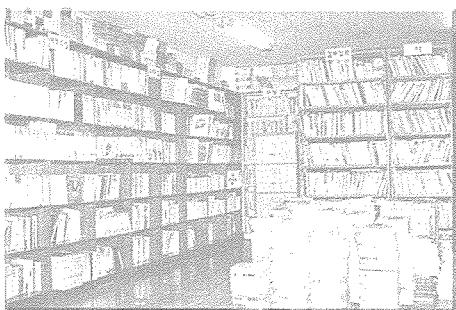
국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서와 교양을 높이자는 취지 아래 독서문화보급을 시작한 이 운동은 우선 무료도서관 설립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 7천여권의 책으로 시작한 본부 모임은 현재 80여평의 공간에 각종 서적 3만여권을 갖춘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출해 주고 있다.

91년부터는 지역적, 경제적으로 문화혜택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

어촌 산간벽지와 오지, 섬마을 어린 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도서관 개설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산간벽지와 외딴 섬지방의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 또는 마을회관 등에 책과 비품을 구비한 무료도서관을 마련해 주고 매달 50여권의 신간서적을 보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내용이다.

지역에서 도서관 개관 요청이 오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초등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적을 중심으로 비치하게 된다. '98년 현재 전국의 20여 곳에 무료도서관을 개관하여 독서보급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서울 본부 모임에서는 또, 작가 와의 만남, 미술교실,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 등 갖가지 문화강좌를 개설해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동포들을 위해 설립된 연변과학기술대학 도서관에 3만여권의 도서를 기증한 것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그밖에 책을 필요로

록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일도 가족모임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

이 외에도 서울본부에서는 독서 방법 지도 및 안내, 청소년 선도, 진학안내 및 상담을 위한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혼자 읽고 책장에 잠재우기에는 아까운 책, 함께 나누고 싶은 책, 보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책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모든 운동이 가족모임 식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니 그들의 땀과 봉사의 정신이 여실히 보이는 것 같다.

새로이 도서관을 개관하는 날은 마을에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다. 이 운동에 뜻을 함께하는 이 미용봉사팀과 의료팀이 가족모임 식구들과 함께 봉사를 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이 없어 읽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김순자 대표. 앞으로도 책 읽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무료도서관 보급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가족모임 식구들.

어쩌면 이들이 나누어 주는 것은 '책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라.

〈글·한연수(자유기고가)〉

\* 좋은 책 기증을 기다립니다.  
혼자 읽고 책장에 잠재우기에는  
아까운 책,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책, 보지는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책들을 보내 주세요. 보  
내주신 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 종류 : 어린이 동화, 전집, 소설,  
집지, 전문서적, 종교서적 등

\*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책 정리, 대출업무 등 일주일  
에 2~3시간 정도 일 하실 수  
있는 분

- 주 소 : 강남구 삼성동 64-3  
삼성B/D 2층

- 전 화 : (02) 545-3326  
- FAX : (02) 545-3327